

인물형상화와 페미니즘 번역: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SF 소설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를 중심으로\*

이상빈 · 이선우  
(한국외대)

## 1. 서론

여성 작가들에게 SF(공상과학소설)라는 가상공간은 현 사회의 가부장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상적인 문학 형태로 인식되었다(박정오 2006: 629). 이러한 인식은 197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거둔난 급진적 페미니즘과 조우하면서 남성 고유의 전유물로 간주되던 SF 영역에서 여러 여성 작가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당시 여성 SF 작가들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차별 및 인간소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신두호 2008: 155).<sup>1)</sup>

본 연구는 1970년대 여성 SF 작가를 대표하는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James

---

\*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수현 작가(번역가)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본고에서 ‘여성 SF 작가’는 페미니즘 글쓰기를 실천하는 작가를 의미한다.

Tiptree Jr.)의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원제: *Houston, Houston, Do You Read?*)를 통해 페미니즘 번역의 실제(practice)를 탐구한다. 특히 남자주인공의 인물형상화(characterization)를 통해 티프트리의 페미니즘 시각을 살펴보고 영어 원문에 대한 두 개의 한국어 번역문을 비교하여 인물과 주제 그리고 번역의 문제를 통시적으로 논할 것이다.

인물형상화, 즉 등장인물의 행동, 사고, 감정 등을 묘사하는 방식은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주제와도 관련 있다(Lee 2011). 예컨대 소설 *The Secret Agent*의 클라이맥스에는 순종적 여성으로 묘사되는 버록(Verloc) 부인이 (지적장애자인 남동생을 테러범으로 만들고 살해한) 남편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작가는 이 대목에서 부인의 살인 행위가 본능적 반응임을 암시하기 위해 무생물주어 구문(예: “the carving knife had vanished ... the knife was already planted in his breast”)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Kennedy 1982). 이러한 예를 통해 추측해보면 인물형상화와 관련된 언어는 작가가 정교하게 구축한 텍스트적 재현이며, 그러한 재현이 달라질 경우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작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이상빈 2017b: 184-185). 일부 연구자들은 인물형상화의 변화 요인으로 번역을 지목해왔다(권오숙 2010; Lee 2011; 이주은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페미니즘 SF’라는 새로운 장르를 활용하여 번역이 인물형상화와 주제(페미니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페미니즘 SF, 페미니즘 번역, 인물형상화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후, 분석 대상의 줄거리, 주변텍스트(peritext), 등장인물 등의 배경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이어 주인공의 인물형상화가 두 번역문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현됐는지를 비교한 후 그 분석 내용을 번역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끝으로는 전체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국내 페미니즘 번역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논의한 후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간략히 제언한다.

## 2. 선행연구

### 2.1 페미니즘 SF

SF는 한때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소수의 여성 작가들은 활동 자체부터 큰 제약을 받았으며, 일부는 편견 없는 작가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 반기를 들며 시작된 제2차 페미니즘 물결(second-wave feminism)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 SF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페미니즘 SF’라는 새로운 장르를 태동시켰다. 여성 SF 작가들은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침묵당한 여성을 재현하기 위해 SF를 적극 활용하였다(DuPlessis 1985: 186).

여성 SF 작가들은 젠더와 관련된 현실적인 주제를 다룬다. 이는 남성 작가들이 과학의 발전이나 초현실적 주제에 집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성 SF 작가들은 남성 중심적 사회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예컨대 ‘(성)폭력’, ‘남성권위주의’, ‘가부장적 태도’, ‘성적 대상화’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였다(Wolmark 1994). 이러한 주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SF는 문학의 주변 장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문적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신두호 2008: 154). 이러한 공백은 국내외 번역학계의 경우 더욱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세계적인 출판사 라우틀리지(Routledge)와 존 벤자민스(John Benjamins)의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SF 번역’을 심도 있게 다룬 논문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SF는 현실세계의 담론을 쉽게 전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번역과 같은 탐구 주제를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장르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페미니즘 번역의 실천을 논하기 위해 SF 텍스트를 실험적으로 다루어본다.

### 2.2 페미니즘 번역 연구

20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확산된 서구의 페미니즘 의식은 비슷한 시기에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맞이한 번역학과 연대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번역을 수행하고 고찰할 수 있게 하였다. 대표적 페미니스트 작가인 니콜 브로사르(Nicole Brossard), 바바라 고다르(Barbara Godard), 드 로트비니에르-하우드(de

Lotbinière-Harwood) 등은 실험적인 글쓰기와 페미니즘 번역을 실천했고 원문과 번역문을 자유롭게 오가며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Bassnett 2014: 68-72). 이와 관련해 사이먼(Simon 1996: 2)은 “페미니즘 번역에서의 충실성은 원저자나 독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번역가가 모두 참여하는 글쓰기 프로젝트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며 페미니즘 번역가들이 원문과 번역문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제안한다. 다수의 페미니스트 번역가들은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원문과 번역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궁극적으로는 페미니즘의 가치와 의식을 텍스트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von Flotow 1991, 1997).<sup>2)</sup>

페미니즘 번역 연구는 최근 들어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거듭했다. 첫째, 연구방법(론)이 텍스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번역 결과물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예컨대 사딘(Sardin 2011)은 타하르 벤 젤룬(Tahar Ben Jelloun)의 소설 『모래의 아이(L'enfant de sable)』의 영역을 분석하면서 미국 출판시장의 영향력을 논한다. 특히 그는 불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원문의 젠더 담화를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철저하게 독자중심적인 미국의 출판시장과 미국 사회의 보수적인 성향에서 찾는다.

둘째, 최근의 연구들은 페미니즘 담론의 탈서구화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최근 출간된 *Translating Women: Different Voices and New Horizons*는 쿠바, 중국, 일본, 이란 등에서 수행된 젠더 연구를 수록한 편지이다(von Flotow et al. 2017). 역사적으로 페미니즘 번역은 캐나다 퀘벡,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페미니즘 번역 이론 역시 영어와 불어를 중심으로 파생되었기 때문에 번역학에서의 페미니즘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서구중

2) 캐나다 학파를 필두로 페미니즘 번역은 언어가 지극히 남성중심으로부터 발전해왔으며 영어와 불어 간의 문법적 차이로 발생하는 제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영역을 공고히 해왔다. 따라서 원문을 해체하고 전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즘의 가치를 드러내고 여성의 주체성을 높이는 것이라 주장한다(Santaemilia 2011: 55-56). 하지만 페미니즘 번역은 특정 언어를 과감하게 번역하는 것으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본고(제 4~6장)에서와 같이 페미니즘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저자의 글쓰기를 페미니즘의 가치로 인식하고 번역문에서도 충분히 구현해내는 것이다.

심적이었다. 따라서 비서구권의 연구들은 차별화된 소재와 주제로 페미니즘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의 페미니즘 번역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는 존재한다. 첫째, 연구의 주제가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에 묶여 있다. 예를 들어 페랄(Feral 2011)은 칩텍스트(chick text)에 반영된 여성의 성 담론을 분석했고, 유미향 박정운 이영훈(2012)과 하이핑(Haiping 2017)은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에 나타난 여성의 성적 표현과 섹슈얼리티를 탐구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 담론에서 벗어나거나 페미니즘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그간의 연구는 메타담론(meta-discourse)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월마크(Wallmach 2006: 23)는 “충분한 메타담론의 유무 여부가 페미니스트 번역이 기존 번역 이론에서 차별화 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분석텍스트가 소설인 경우 역자 서문 및 후기 외에도 표지에 나타난 도서명, 출판사명,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등은 번역주체가 페미니즘을 의식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변텍스트를 고려한 페미니즘 번역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cf. 이상빈 선영화 2017).

셋째, 분석텍스트의 장르가 여전히 일반 문학작품 및 서구 페미니즘의 성서라 불리는 일부 작품들에 국한되어 있다. 예컨대 마승혜(2015)는 케이트 쇼팽(Kate Chopin)의 단편소설 『각성(Awakening)』을 분석했고, 후루카와(Furukawa 2017)는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과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에어(Jane Eyre)』를 고찰했다. 이외에도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과 이브 앤슬러(Eve Ensler)의 『버자이너 모놀로그(The Vagina Monologues)』 등은 페미니즘 번역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텍스트이다.<sup>3)</sup>

넷째, 소설의 인물묘사와 주제구현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남성 인물의 묘사를 바탕으로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논의했거나 번역이 주제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선행

3) 물론 예외도 있다. 예컨대 나르디(Nardi 2011)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광고번역을 통해 논의하였고, 이상빈(2016, 2017a)은 젠더이론 및 번역 실천과 관련하여 자동차 광고번역과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의 자막번역을 분석했다.

연구의 분석 내용은 번역가의 확인이 결여된 채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어 주제 분석에 대한 타당성 제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페미니즘 SF라는 새로운 형식의 장르를 통해 작품 속 남성 담론의 번역과 페미니즘 구현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원서와 번역서에 나타난 다양한 주변텍스트를 살펴보고 두 번역문의 차이를 해석한 후 그 내용을 번역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페미니즘 번역의 실천 및 페미니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짚어보고, 몇 가지 유의미한 페미니즘 번역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를 확대해 보고자 한다.

### 2.3 인물형상화와 번역

논문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소설에서의 인물형상화는 작품의 주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원문의 인물형상화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원저자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번역문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본고의 분석텍스트인 *Houston, Houston, Do You Read?*는 상이한 캐릭터로 설정된 세 명의 남자주인공이 등장하고, 이들은 여성 등장인물들과 성 인식에 있어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세 남자주인공의 인물형상화는 페미니즘 시각을 전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물형상화와 번역을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선행연구는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을 분석틀로 활용해 텍스트를 미시적으로 분석했다. 가령 이창수(2010)는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을 테너(tonor)의 어휘문법적 요소(lexico-grammatical features)에 대입하여 등장인물의 성격 형성에 관여하는 언어적 요인들과 그 역할을 확인했다. 또한 이상빈(Lee 2011)은 이상의 소설 『날개』를 활용하여 번역가의 동사성(transitivity) 선택이 인물형상화는 물론 독자의 인물 수용(reception)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냈다. 최근에는 김혜림(2017)이 라오서(老畝)의 『낙타상즈(駱駝祥子)』와 그 한국어 번역본 두 개를 비교하여 인물 변화에 따른 서술어 번역의 변환 양상을 고찰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들은 언어의 표층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인물형상화

의 번역이 작품의 주제 구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탐구하지 않았다. 물론 번역과 관련된 연구 중에도 작품 주제와 인물형상화의 관계를 조명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Simpson 1993; Martínez 2002; Ji & Shen 2004).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 인물을 논의한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시적 관점에서 번역서 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도 매우 드물다.

둘째, 선행연구는 인물형상화의 번역 양상을 매체(장르)의 기술적 제약과 연결하여 분석한다. 예컨대 희곡이나 영화 장르의 경우에는 복잡하게 결속되어 있는 다양한 기호와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형이 발생한다. 희곡 『살로메(Salome)』를 선정해 여주인공의 어투를 번역의 관점에서 고찰한 권오숙(2010: 4)은 희곡이 “문학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공연 대본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보존이나 변형의 정도 혹은 전략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희곡의 특성상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가 대사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주인공의 어투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주은(2015)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영어자막에서 주인공의 독특한 어투가 대부분 삭제되거나 변형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자막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제약이 없는 소설 장르를 기반으로 인물형상화의 번역 문제를 고찰하기 때문에 번역가의 선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 분석 텍스트

#### 3.1 작가, 작품, 등장인물 소개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1915~1987, 본명: Alice B. Sheldon)는 페미니즘 SF의 기수로 평가받는 미국 작가이다. 그는 여성 SF 작가로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아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라는 필명으로 스페이스 오페라, 펄프 픽션 등의 남성 장르를 다뤘다. 일각에서는 그의 필명과 문체를 놓고 중년의 남성작가로 확신했으나 우연한 계기로 그가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SF계는 일명 ‘톱트리 쇼크’에 빠지기도 했다. 톱트리는 1970년대 SF계의 주요 상을 독점하다시피 하면

서 당시 남성의 고유 영역인 SF 팬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Phillips 200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Houston, Houston, Do You Read?*(1976, 이하 *HHD*로 약칭)는 팀트리(Tiptree)의 작품 중에서도 페미니즘 SF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Evans 2015: 229). *HHD*는 SF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네블러상(Nebula Award 1976)과 휴고상(Hugo Award 1977)을 모두 거머쥐면서 특유의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소설 속에 나타난 팀트리의 주제 의식은 제2차 페미니즘 물결과 맥을 함께 하면서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다(장정희 2016). *HHD*는 여자들만이 살아남은 2300년경의 세계에서 남성의 지배적 위치,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 가부장적 사회구조 등을 재현한다.

*HHD*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버나드 게어(Bernhard Geirr) 대위, 노먼 데이비스(Norman Davis) 소령, 오렌 로리머(Orrin Lorimer) 박사는 선버드호에 몸을 싣고 우주비행을 하던 중 우주선에 큰 피해를 입고 표류한다. 그들은 표류 중에 겪은 시간여행으로 인해 200만 명의 여자 클론만이 존재하는 300년 후의 미래를 마주하게 된다. 다행히 세 남자는 여성 우주비행사들만이 탑승한 글로리아호의 도움을 받아 선버드호를 탈출하여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글로리아호의 비행사들이 투여한 약물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성 본연의 모습을 노출하고 만다. 결국 세 남자는 폭력과 복종이 수용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지 못한 채 지구로 향하는 글로리아호에서 파국을 맞는다.

*HHD*의 세 주인공은 팀트리의 페미니즘 관점을 암시하는 일그러진 남성상을 대변한다. 특히 각 주인공이 묘사되는 방법은 다양한 남성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예: ‘성폭력’, ‘종교에서의 성차별’, ‘남성응시’,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 속에서 드러난 남성 인물 각각의 캐릭터와 이미지는 페미니즘과 직결되므로 인물을 분석하면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 등장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버나드는 마초 기질이 강하고 공격적이며 성적으로 방종한 인물이다. 그는 남성의 멸종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젊고 예쁜 여성들과 섹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즐

거워한다. 특히 폭력적인 남성의 모습을 드러낸 채 여성비행사에게 강간을 시도하면서 작품 속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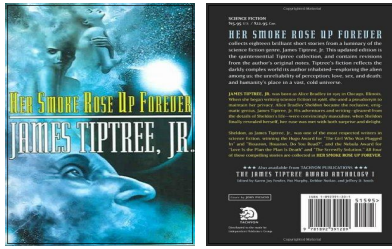
데이비스는 기독교 신앙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아버지 상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선버드호의 지휘관으로서 책임감과 냉철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약물이 투여된 후에는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특히 자신의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이 ‘폴’(Paul: 바울의 영어 이름)임을 강조하며 사도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는 바울서신 가운데 (그리스도교 여성관을 논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 구절을 외치며 반여성적 종교관을 표출하고 남성중심사회를 재건하고자 무력을 휘두른다(손은실 2014: 80).

로리머는 소설의 관찰자이자 세 명의 남자 가운데 가장 ‘여성친화적인’ 인물이다. 남자답지 못한 탓에 버나드와 데이비스에 의해 별 것 아닌 취급을 받고, 여러 면에서 하찮고 열등한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동시에 그들의 강력한 남성상을 동경한다. 특히 버나드가 강간을 시도할 때는 그 모습을 훔쳐보면서 남성의 탐욕스러운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남성의 폭력성을 정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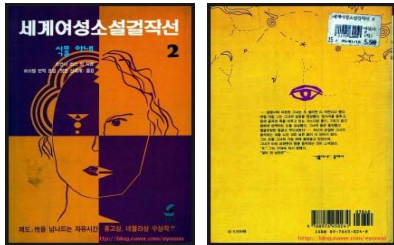
### 3.2 원문 및 번역문 소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4년 재출간된 톱트리 주니어 작품집과 관련 번역서 두 권에서 발췌하였다. 원문은 *Her Smoke Rose Up Forever*(2004)에서 아홉 번째로 수록된 작품(pp. 163-216)이며, 번역문은 『세계여성소설결작선 2』(1994)의 네 번째 작품(pp. 131-234, 이하 ‘번역문 1’)과 『톱트리 주니어 결작선 - 체체파리의 비법』(2016)의 네 번째 작품(pp. 175-270, 이하 ‘번역문 2’)이다. 세 도서의 표지 이미지를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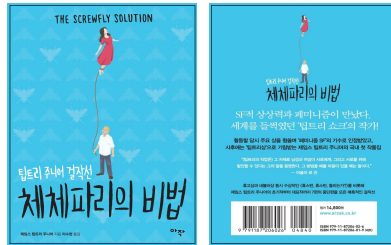
<그림 1> 원서, 번역서 1, 번역서 2의 앞표지와 뒤표지



원서(1976/2004)



번역서 1(1994, 여성사)



번역서 2(2016, 아작)

원서와 각 번역서 표지에 나타난 도서명, 출판사명,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원서는 배경 이미지나 출판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페미니즘보다는 SF 장르를 보다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겉표지에서 ‘feminism’과 관련된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반면, 번역서 1은 도서명, 출판사명, 속표지, 역자 후기 등의 주변텍스트에서 페미니즘의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으며, 번역서 2도 다양한 주변텍스트를 통해 페미니즘 도서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번역서 2의 경우에는 언어기호뿐만 아니라 시각기호를 통해 페미니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표 1> 주변텍스트 비교 요약

항 목	원서	번역서 1	번역서 2
도서명	HER SMOKE ROSE UP FOREVER	세계여성소설결작선 2	팁트리 주니어 결작선 - 체체과리의 비법
출판사	Tachyon Publications (SF 전문 출판사)	여성사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	아작(SF 전문 출판사, 페미니즘 도서 목록 보유 출판사)

번역가	—	‘멋진 신세계’(하이텔의 과학 소설 동호회)	이수현(SF 작가 겸 번역가)
시각 기호	앞표지: 우주를 배경으로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 페미니즘 요소보다는 SF 장르의 특징을 강조	앞표지: 여성의 얼굴 이미지를 피카소 기법으로 제시(페미니즘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음)	앞 뒤 열면 표지: 비상(飛上)하려는 여성과 그 여성의 발목을 밧줄로 묶어둔 남성 이미지 제시. 전체 이미지를 파스텔 톤으로 표현함으로써 국내 페미니즘 도서의 ‘색채’ 규범을 따름(이세아 2017)
언어 기호	- 뒤표지: 작품집 (Her Smoke Rose Up Forever)과 제임스 톱트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서문: “페미니스트 이야기”(feminist fable)라는 표현만 있을 뿐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의는 없음	- 속표지(p. 131): 버나드의 사정(射精) 장면을 일부 발췌하여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예: “작은 굴 같은 것들이 힘없이 뿔어져 나왔다.”) - 표지 뒷면: 여성에 관한 출판사의 고민을 언급(예: “우리는 ‘세계여성소설결작선’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소설로 소개하려고 한다.”) - 역자후기: 페미니즘과 SF를 연결 짓고 있으나 분석대상이나 번역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음	- 뒤표지: 언어기호로 페미니즘 도서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예: “SF적 상상력과 페미니즘이 만났다 ... 페미니즘 SF의 기수로 인정받았고”) - 역자후기: 작가와 분석대상에 대해 간략히 소개(번역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그림 1>과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서 1>과 <번역서 2>의 출판 시기는 각각 1994년과 2016년으로 시대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있고, <번역서 1>의 경우 출판사 및 번역가가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텍스트 선정에 대한 타당성 성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SF 장르라는 국내 출판 시장의 특성상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번역서가 실존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두 번역서가 출판시기, 출판사, 번역가 등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텍스트를 비교하면 국내 페미니즘 번역의 실천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영역은 세 남자주인공의 말, 시각, 인지 등을 묘사한 부분으로, 개념적으로는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 ‘성경의 성차별적 관점’, ‘남성응시’(male gaze) 등과 관련이 있다. 성적 대상화란 “특정 대상을 성적 쾌락의 도구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Fredrickson & Roberts 1997: 175)을 뜻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섹스에 집착하는 버나드의 인물묘사와 관련 있다. 한편 성경의 성차별적 관점은 여성에게 순종과 침묵을 종용하는 불평등한 기독교적 세계관(관련 성경구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왜곡된 신앙심으로 여성비행사들을 지배하려는 주인공 데이비스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끝으로 남성응시란 “여성을 ‘보여 지는 대상’ 혹은 ‘관음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Mulvey 1992: 27)으로, 본 논문에서는 로리머와 관련된 사례에서 논의된다.

#### 4. 분석 결과

소설 *HHD*에서 팀트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세 남자주인공의 인물형상화를 통해 구현된다.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문 1>과 <번역문 2>에 나타난 인물형상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4.1 버나드(버드)

버나드는 성적으로 거칠고 방중한 인물로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인식한다. 또한 고착화된 성 역할에 집착하고 남성 우월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버나드의 왜곡된 성 의식은 다음 [사례 1] ~ [사례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원문: Cunt, Bud grunts, you have to have a cunt in there, is it froze up? You dumb cunt ... (p. 207) His Majesty's sacred balls. They'll worship it – Buddy Geirr, the last cock on Earth. (p. 209)

번역문 1: “거시기, 너 거기에 그게 달렸지, 얼어붙기라도 했나? 이 멍청한 년 ...” (pp. 214-215) “폐하의 거룩하신 거시기. 여자들이 그걸 숭배할 거야. 버디 제이르, 지구 최후의 남성.” (p. 220)

번역문 2: “보지. 거기 보지가 있을 텐데, 얼어붙었나? 이 멍청한 년 ...” (p. 253) “폐하의 성스러운 불알. 다들 그걸 숭배하겠지 ... 버나드 게어, 지구 상의 마지막 자지!” (p. 258)

[사례 1]은 버나드가 여성비행사 주디를 강간하는 상황에서 성기와 관련된

저속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장면이다. <원문>에서 밑줄 친 단어 ‘cunt’, ‘balls’, ‘cock’ 등은 성적으로 거침없고 방종한 버나드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는 <번역문 1>과 <번역문 2>에서 다르게 번역되고 있다. 먼저 <번역문 1>에서는 “cunt”, “balls”, “cock”을 각각 “거시기/그계”, “거시기”, “남성”으로 번역해 <원문>의 의미를 완곡하게 우회해서 전달한다. 이와 달리 <번역문 2>에서는 “cunt”를 “보지”, “balls”를 “불알”, “cock”을 “자지”로 번역함으로써 버나드의 언어를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다.

## [사례 2]

원문: Nobody home, nothing but pussy everywhere. (p. 209)

번역문 1: 집에는 아무도 없고, 사방엔 계집애들 뿐이라. (p. 219)

번역문 2: 집엔 아무도 없고, 사방에 밀구멍만 있단 말이지. (p. 257)

[사례 2]에서 엿볼 수 있듯이 버나드는 남성이 멸종된 지구를 가리켜 ‘보지(pussy)만이 남은 세상’으로 표현한다. 이는 버나드가 여성을 성적 대상(sexual object)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번역문 1>에서는 “pussy”를 “계집애”로 번역해 여성을 낮잡아 표현하고 있지만 사물화하지는 못했다. 반면 <번역문 2>에서는 여성의 음부를 속되게 지칭하는 “밀구멍”으로 번역해 여성을 성적 도구로 바라보는 버나드의 세계관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 [사례 3]

원문: Two million hot little cunts down there, waiting for old Buddy. (p. 209)

번역문 1: “백만 마리의 따끈따끈한 계집애들 거시기가 저 아래에 있네. 이 버드 나리를 기다리면서.” (p. 219)

번역문 2: “저 밑에 뜨겁고 작은 보지 이백만 개가 사나이 버나드를 기다린다 이거군.” (p. 257)

[사례 3]도 [사례 2]와 마찬가지로 버나드의 왜곡된 성의식을 확인시켜준다. <원문>의 밑줄 친 “old b[B]uddy”는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의미하는데, 이는 ‘buddy’의 준말이 ‘bud’(버드, 버나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말장난(wordplay)에 해당한다. 버(나)드는 지구상의 여자들이 오랫동안 남자를 못 봤고 이제야 그들

의 성욕을 충족시켜줄 ‘진정한 남자’(자신)가 나타났다고 착각한다. 특히 그는 “[자신의 성기를 바라보며] 오, 내 물건 봐라. 강철 같구만 ”, “[강간하기 전에] 이년아,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자신을 향해] 지구상의 마지막 자지!”(번역서 2, pp. 253-258)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남자란 ‘여성을 성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터프한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번역문 1>에서는 “old Buddy”를 “버드 나리”로 번역함으로써 버나드를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만 묘사하고 있다(게다가 ‘나리’라는 단어는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특정항목에 가깝다). 반면 <번역문 2>의 “사나이 버나드”는 (성적으로) 험기 왕성한 남자를 버나드에 비유함으로써 버나드의 여성관을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sup>4)</sup>

## [사례 4]

원문: We love to keep it all going and growing, we all love traveling.  
Man is a rover, that's one of our mottoes. Are you hearing, what I'm hearing? Bud asks, blinking comically. (pp. 183-184)

번역문 1: “우리는 그 계획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여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인간은 방랑자다. 우리의 표어 중 하나지요.” 마고가 대답했다.

“믿기지가 않는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요?” 버드가 우스꽝스럽게 눈을 깜빡이면서 물었다. (p. 170)

번역문 2: “우린 그 모든 것을 계속 운영하고 성장시키고 싶고, 우리 모두 여행을 좋아한다. 인간은 방랑자라는 게 우리의 모토 중 하나다.”

“남자가 방랑자 아니었어?” 버나드가 억살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묻는다. (p. 212)

[사례 4]는 여성비행사 마고가 인류의 우주탐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마고는 과거 남성들이 개발한 우주 프로그램 덕분에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방랑자’라는 것이 ‘인류’(지구상에 생존한 여성들)의 모토라고 덧붙인다. <원문>의 “Man is a rover”(인간은 방랑자)는 “Man is a rover; woman is stationary”에서 비롯된 구절로, 남성은 자유롭고 능동적인 주체

4) 참고로 말하면 <번역문 2>는 <번역문 1>과 달리 버나드가 성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서도 “사나이”라는 단어를 제시한다.

인 반면 여성은 정박된 객체라는 뜻을 내포한다(Briffault n.d., Ellis 1934/2013: 440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문 1>과 <번역문 2>의 밑줄 친 부분을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번역문 1>에서는 “Are you hearing, what I’m hearing?”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요?”라고 번역함으로써 man(‘남성’ 또는 ‘인류’)의 중의적 의미를 노린(남성 중심의 언어사용을 비판하고자 했던) 팁트리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반면 <번역문 2>에서는 “남자가 방랑자 아니었어?”라고 의역함으로써 언어 문화적 간극을 메우고 버나드의 일그러진 남성관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 4.2 데이비스(데이브)

데이비스는 성경에 있는 성차별적 관점을 거침없이 표출하고 여성비행사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인물이다. 팁트리가 데이비스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세계관은 다음 인용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운영할 능력이 없네 ...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 고린도전서 11장 3절 ...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딸들이 어둠에서 나오도록 이끌겠나이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엄하나 자비로운 아버가 되겠나이다 ...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 디모데서 2장 11절. 저들은 저들을 통치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할 아들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 요한계시록 12장 5절” (번역서 2, pp. 262-263, 데이비스의 말)

이처럼 데이비스의 언어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지를 보여준다. 팁트리는 기독교 텍스트를 남성 담론의 구성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래 [사례 5]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례 5]

원문: They mustn’t do that to Dave, treating him like an animal, for Christ’s sake, a man — (p. 213)

번역문 1: 데이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돼, 제물로 바치는 짐승처럼 다루

다니, 인간을, 남자를. (p. 227)

번역문 2: 데이비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p. 264)

[사례 5]는 데이비스가 여성비행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을 휘두르다가 오히려 제압당하는 상황이다. 이 장면에서 화자 로리머는 ‘[신앙심이 깊은] 데이비스는 “절대로”(for Christ’s sake) 짐승 취급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for Christ’s sake”(사전적 의미: ‘제발’, ‘절대로’, ‘하느님 댁 소사’)와 같은 표현이 작가의 페미니즘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톱트리 는 성경에 표현된 여성 차별적 시각을 드러내기 위해 남자주인공의 말, 특히 데이비스와 관련된 말에서 기독교적 색채가 포함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sup>5)</sup> 이 점을 고려하면 <번역문 1>에서는 <원문>의 종교적 색채가 누락되어 작가의 주제 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 반면 <번역문 2>에서는 “for Christ’s sake”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역함으로써 다소 어색하게는 읽히지만 작가의 주제 의식을 의도적으로 살렸다.

### 4.3 로리머

로리머는 세 남자주인공 가운데 가장 온전한 인물이다. 하지만 소설 후반부에서는 버나드와 데이비스를 옹호하고 그들의 성향을 일부 보이면서 그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본 연구는 [사례 6], [사례 7]에서와 같이 로리머의 남성응시에 주목한다.

[사례 6]

원문: Go on, more — avidly he sees Bud mouth her breasts again and then suddenly flip her whole body over, holding her wrists behind her in one fist, his legs pinning hers. (p. 207)

번역문 1: 계속해, 더 계속하라구. 로리머는 버드가 다시 쥬디의 가슴에

5) 반면 여성인물의 감탄사는 종교적 언어가 배제된, 여성 중심의 언어로 재구성되었다. 예컨대 여성 우주비행사들은 “oh, mother!”(p. 200)를 “oh, my god”, “jee-sus christ” 등의 대용어로 사용한다. 이러한 감탄사는 <번역문 1>에서 “앗, 어찌먼 좋아!”(p. 201)로 변질된 반면, <번역문 2>에서는 “오, 어머니시여”(p. 241) 등으로 직역되었다.

입술을 문대다가 갑자기 주디의 몸 전체를 뒤집어서 한 손으로 그녀의 두 손목을 잡고, 그의 양 다리가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p. 216)

번역문 2: 계속해, 더 하라고! 그는 버나드가 다시 주디의 가슴에 입을 대고, 갑자기 그녀의 온몸을 뒤집더니 그녀의 양 손목을 한 손아귀에 잡아 쥐고 다리로 그녀를 짓누르는 광경을 탐욕스럽게 바라본다. (p. 254)

[사례 6]에서는 강간 장면을 엿보는 로리머의 심리 상태가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밑줄 친 “Go on, more”는 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갈망하는 로리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곧바로 이어지는 “avidly he sees”는 관음증적 시각에 사로잡힌 로리머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런데 <번역문 1>에서는 “avidly he see”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로 번역함으로써 작가가 의도한 남성응시의 묘사를 축소시키고 있다. 반면 <번역문 2>에서는 “탐욕스럽게”라는 부사를 이용해 남성응시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사례 7]

원문: Judy gives a cry, begins to struggle futilely. Lorimer's shell boils and bursts. Amid the turmoil ghosts outside are trying to rush in. (p. 208)

번역문 1: 주디는 비명을 지르며 속절없이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로리머는 당황스러웠다. 그 와중에 밖에서 유령 같은 것이 뛰어들어 오려고 했다. (p. 216)

번역문 2: 주디는 비명을 지르고, 헛되이 몸부림친다. 로리머의 껍질이 끌어올라 터진다. 혼란 속에서 바깥에 있는 허깨비들이 쏟아져 들어오려 한다. (p. 254)

[사례 7]에서는 버나드의 성행위를 응시해오던 로리머가 마침내 발기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로리머의 흥분 상태를 암시하는 문장 “Lorimer's shell boils and bursts”는 두 번역문에서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었다. <번역문 1>은 강간 장면을 응시해왔던 로리머의 심리와는 반대되는 내용(“로리머는 당황스러웠다”)을 표현한 반면, <번역문 2>는 비록 암시적이긴 해도 <원문>과 동일한 의미(“로리머의 껍질이 끌어올라 터진다”)를 전달하고 있다.

## 5. 역자 인터뷰

### 5.1 인터뷰 개요

필자는 앞서 소개한 분석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역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만, <번역문 1>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현존하지 않고 번역가(단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번역문 2>에 대한 확인만을 진행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두 번역문의 경향이 확연히 대비되는 점을 감안하면 <번역문 2>의 역자만을 인터뷰하더라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인터뷰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이메일 인터뷰(구조화된 인터뷰)이다. 문항은 앞서 살펴본 제 4장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구성했고 구술 인터뷰에서와 같이 편안한 어투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번역 사례 1]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과 문항을 제시하였다.<sup>6)</sup>

[...] 저희는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의 세 남자주인공을 번역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번역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아래 문항(총 13문항)에 대해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면 설문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논문 내용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번역 사례 1]

원문: Cunt, Bud grunts, you have to have a cunt in there, is it froze up? You dumb cunt ... His Majesty's sacred balls. They'll worship it – Buddy Geirr, the last cock on Earth.

번역문: “보지. 거기 보지가 있을 텐데, 얼어붙었나? 이 멍청한 년 ...” (p. 253) “폐하의 성스러운 불알. 다들 그걸 숭배하겠지 ... 버나드 게어, 지구 상의 마지막 자지!” (p. 258)

질문 1: 밑줄 친 부분은 금기비속어(또는 격식이 낮은 어휘)에 해당합니다. 어떤 독자는 강한 어휘라고 느낄지 모르겠네요(따라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휘를 선정하신 이유나 배경이 있

6) 나머지 인터뷰 문항은 지면의 제약 상 생략하기로 한다.

다면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는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문항 이외에도 ‘등장인물에 대한 역자의 관점’, ‘페미니즘 SF 장르’, ‘페미니즘 번역’, ‘번역과정의 외부적 요인’ 등과 관련된 일반 문항을 포함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항들이 번역가의 번역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일반 문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소설의 남성인물과 관련하여 번역하실 때 특별히 신경 썼거나 유의하셨던 점이 있나요? 각 남성인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고 번역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판단이 번역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소설은 ‘페미니즘 SF’입니다. 이 소설(장르)을 번역하실 때 다른 작품과 차별화한 부분이나 내용은 없었는지요?

필자는 인터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번역문 1>의 존재나 본 논문의 내용을 사전에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본 논문의 초점이 남자주인공의 묘사라는 점을 명시했을 뿐이다. 필자는 인터뷰를 마친 직후 4장의 내용을 번역가에게 소개했고,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전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번역가는 인터뷰 과정에서 매우 친절했으며 어떠한 이해충돌도 표현하지 않았다.

## 5.2 인터뷰 답변 요약

분석사례에 대한 필자의 해석과 번역가의 생각은 대부분 일치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가는 본고에서 분석한 버나드의 [사례 1] ~ [사례 4]와 관련하여 “대체로 한국의 출판계가 비속어(성기관련)를 완곡하게 번역합니다. 편집 단계에서 요구받기 전에 저부터도 그런 편이고요. 이 소설에서는 그런 습관을 깰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pussy라는 단어는 강력한 성적 대상화를 의미한다고 읽었고 ...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여기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old Buddy’를 ‘사나이 버나드’로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는 “버나드라는 캐릭터가 남성성에 집착하는 데서 들어간 표현”이라고 답변했고,

마지막 사례에 관해서는 “그대로 옮기면 무슨 말인지 독자에게 전달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 ‘Man’이라는 단어의 이중성이 번역에서는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독자를 위해 의역했다고 적었다.

데이비스와 관련된 [사례 5]의 경우에도 필자의 분석내용과 일치하였다. 특히 부자연스러운 직역을 선택한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다른 소설, 다른 맥락에서라면 자연스럽게 의역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남자들이 습관대로 God이나 christ가 들어간 관용구를 사용하는 게 소설 속 여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독자가 보기에도 그게 티가 났으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종교가 마지막에 데이비스와 연결되면서 가부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로리머의 [사례 6]에서는 “탐욕스럽게”라는 부사를 사용해 “로리머의 모순을 전달하고 싶었다 ... avidly에서 상황 전달보다는 감정[흥분된 상태]을 느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사례 7]의 경우에는 로리머의 흥분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직역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로리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덧붙였다.

로리머[는] 온건하고 멀쩡한 지식인이지만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그리고 원래 성격과 자라난 환경/교육의 영향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자신이 당대의 훌륭한 남성상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동시에 그 남성상을 싫어하면서 선망하고요. 여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면서도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성적인 욕망에 있어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명확한 욕망이 있지만 그걸 인정하기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성적 대상을 한다 해도 버나드와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후반부에 로리머 본인에게는 ‘나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자각이 깔려 있고, 그게 마지막에는 자기혐오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만 ... 독자는 비판할 수도 있고, 연민할 수도 있지요. 저는 내내 이 인물이야말로 페미니즘이 여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인물묘사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서는 “데이비스와 버나드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같아서, 이입하는 면 없이 각각 ‘가부장’과 ‘자칭 사나이’로 판단

하[였고] ... 로리머 ... 에 대한 작가의 통찰력이 특히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 이 인물에게 이입하고 연민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라고 답변해 인물묘사에 대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음을 암시하였다. 한편 ‘페미니즘 가치를 번역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나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그렇다고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독자를 가르치려 하거나 전면에 나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하면서 ‘급진적’ 페미니즘 번역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끝으로 ‘만일 20년 전에 이 작품을 번역하였다면 동일한 번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를 겁니다 ... 아무래도 지금처럼 적나라한 언어를 가져다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반응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번역가의 어휘 선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6. 요약 및 논의

앞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나드의 경우 <번역문 1>은 폭력적이고 남성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버나드의 성격을 대체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시켰다. 반면 <번역문 2>는 남성성에 집착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나이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둘째, 데이비스의 경우 <번역문 1>은 기독교 색채의 관용구를 번역하지 않아 데이비스의 특징과 직결되는 표현을 누락시켰다. 반면 <번역문 2>는 기독교에 근거한 텍스트를 직역하였고 그 결과 작가의 의도를 보존할 수 있었다. 셋째, 로리머의 경우 <번역문 1>은 관음증에 빠진 로리머의 상태를 담아내지 못한 반면, <번역문 2>는 관음증에 사로잡혀 자기모순에 빠진 남성응시를 제대로 구현하였다. 결국, 작가가 차별화한 세 남자주인공의 인물형상화는 <번역문 1>보다 <번역문 2>에서 훨씬 더 충실하게 보존되었다.

인물형상화와 주제구현을 위해 <번역문 2>가 사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기비속어(‘cunt’, ‘cock’, ‘pussy’)를 번역할 때 명제적 의미(propositional meaning)뿐만 아니라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도 함께 고려하여 어휘의 감정적 강도를 유지하였다(Baker 2011: 11). 이는 영한소설번역에서 ‘성’, ‘신체

부위' 등과 관련된 금기비속어를 격식이 높은 어휘(완곡어)로 대체하는 규범과 대비된다(한미선 2012). 둘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리머의 껍질이 끓어올라 터진다”의 경우처럼 어색함을 감수하고 직역하여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셋째, ‘남자가 방랑자 아니었어?’에서는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페미니즘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넷째, ‘사나이 버나드’, ‘탐욕스럽게 바라본다’에서처럼 <원문>의 어휘를 페미니즘 시각에서 섬세하게 번역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번역문 2>는 본 연구의 맥락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한 번역이다.

반면 <번역문 1>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가의 페미니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첫째, ‘거시기’, ‘그거’, ‘계집애’ 등과 같이 번역 독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여성에 대한 버나드의 왜곡된 인식을 약화시켰다. 둘째, “for christ’s sake”와 “Lorimer’s shell boils and bursts”의 경우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번역한 탓에 페미니즘 요소가 삭제되었다. 셋째, “Are you hearing, what I’m hearing?”의 경우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번역가는 <원문>을 직역하고 말았다. 넷째, “버드 나리”,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는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페미니즘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번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작가의 페미니즘 의식을 보다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국화(foreignization)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데 로쉴(Des Rochers 2017)는 쿠바 소설의 페미니즘 사상이 영어번역에서 기능적 등가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심각한 자국화(domestication) 현상에서 찾는다. 페미니즘 글쓰기는 언어의 해체를 수반하는 의도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번역 시 원문의 구성 요소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어 하나가 인물형상화 나아가 작가의 주제의식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젠더와 관련된 어휘는 신중하게 번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위(Yu 2015)는 여성의 몸, 성기,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어휘의 번역이 페미니즘 구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예컨대 그는 *The Vagina Monologues*의 세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지’와 관련된 어휘와 페미니즘 수용(受容)의 관계를 논한다(Yu 2015: 107-108).<sup>7)</sup> 셋째, 번역가는 여성작가나 여성 등장인물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페미니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Maier

1998). 본 연구를 예로 들면 인터뷰 응답자는 인물에 대한 토피트리의 분석을 해아리고 여성비행사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남성주인공에 대해 일종의 저항감 내지 연민 등을 느끼며 번역하였다.

물론 1990년대 중반에 출판된 <번역문 1>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원문>의 인물형상화와 작가의 주제의식을 고려하면 <번역문 1>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번역이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자지’, ‘보지’, ‘밀구멍’ 등과 같은 번역은 자기검열의 대상이거나 번역규범에 어긋나는 선택이었다. 또한 <번역문 1>은 공동번역으로 출간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여기서 필자는 <원문>의 비속어를 직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단편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의 비속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번역이 *HHD*의 인물형상화 나아가 작가의 페미니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번역문 1>과 달리 <번역문 2>는 사회적으로나 출판시장에서 페미니즘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간된 번역이다. 즉, 굳이 페미니즘 출판사나 번역가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 번역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출간되었다. 특히 <번역문 2>는 SF 전문 출판사의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페미니즘 도서의 색채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책 표지의 언어기호와 시각기호 면에서도 SF보다는 페미니즘 도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번역문 1>과 <번역문 2>의 차이는 번역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이 번역의 구체적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7) 음부와 관련된 단어들(예를 들어 7) 음부와 관련된 단어들)이 열거되는 경우 두 번역본(Chen/Yu의 번역)은 영어표현과 중국어 대응어를 병기하거나 중국어 번역 없이 영어표현만을 남겨두었다. 반면 세 번째 번역본(Ai의 번역)에서는 음부와 관련된 영어표현이 중국독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두 번째 번역(Yu의 번역)은 ‘보지’의 중국어 표현을 여러 개 추가하여 중국독자들에게 원문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 7. 결론

본 연구는 1994년과 2016년에 출간된 두 번역문을 인물형상화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번역이 인물형상화와 주제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번역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페미니즘 출판사가 출간한 <번역문 1>은 인물형상화를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작가의 페미니즘 의식을 축소하였다. 반면 <번역문 2>는 페미니즘을 내세운 출판사나 번역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주도적이고 의식적인 페미니즘 번역을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주제구현과 관련된 분석 내용은 단순한 텍스트 층위의 논의일 뿐 실증적 차원의 검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물론 번역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번역문 1>의 역자 인터뷰와 독자 반응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번역 시기가 비슷한 다른 번역 쌍을 선별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90년대와 최근에 재번역된 페미니즘 소설의 사례를 발굴하여 본 연구의 관점과 내용이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외 페미니즘 번역 연구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텍스트의 양을 늘리고 정량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페미니즘 번역의 관습과 규범을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cf. Furukawa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동안 번역학에서 탐구되지 않았던 장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후 페미니즘 번역을 여성 담론이 아닌 남성 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페미니즘 번역 연구에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하였다. 둘째, 텍스트 분석에 앞서 다양한 메타담론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셋째, 인물형상화와 주제구현을 연계하여 페미니즘 번역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국내 페미니즘 번역 연구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넷째, 번역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유사 연구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텍스트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 참고문헌

- 권오숙 (2010) 「희곡 번역 시 알맞은 어투 선정의 중요성: 와일드의 살로메 번역을 중심으로 한 고찰」, 『통역과 번역』 12(1): 3-20.
- 김혜림 (2017) 「중한 소설 번역의 인물형상화와 서술어 변환 양상 고찰: 라오서(老舍)의 낙타상즈(駱駝祥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21(3): 27-53.
- 박정오 (2006) 「여성 SF 작가가 꿈꾸는 가상세계 속의 신화와 젠더: 르윈의 어둠의 왼손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52(3): 627-643.
- 마승혜 (2015) 「한국 젠더 번역 사례 연구: *The Awakening*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9(3): 23-52.
- 손은실 (2014) 「토마스 아퀴나스의 여성관: 요한복음 주석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세철학』 20: 67-99.
- 신두호 (2008) 「어슐라 르 퀴의 SF와 환타지 문학에 나타난 노장사상과 조화의 미학」, 『동서비교문학저널』 19: 153-177.
-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 2의 성> 번역본 비교」, 『번역학 연구』 19(3): 23-52.
- 이상빈 (2016) 「자막번역에 의한 여성 재현의 변이: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20(2): 59-80.
- 이상빈 (2017a) 「광고와 젠더번역: 수입자동차 인쇄광고의 남성타깃 번역전략」, 『통번역학 연구』 21(2): 85-108.
- 이상빈 (2017b)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이상빈, 선영화 (2017) 「버라이어티 모놀로그를 통해 살펴본 국내 페미니즘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통번역학 연구』 21(3): 109-135.
- 이세아 (2017. 1. 7) 「페미니즘 도서는 왜 ‘분홍분홍’할까」, 『여성신문』, 2018년 1월 17일 검색. <http://www.womennews.co.kr/news/110975>.
- 이주은 (2015) 「자막번역의 문체와 등장인물의 성격묘사: 7번방의 선물 주인공 대사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6(1): 93-116.
- 이창수 (2010)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 작품의 등장인물 성격에 대한 체계언어학적 분석연구」, 『언어와 언어학』 47: 167-190.

- 장정희 (2016) 「과학기술과 여성의 육체: 제임스 톱트리 2세의 접속된 소녀」, 『현대영미소설』 23(3): 101-123.
- 한미선 (2012) 「격식변화 측면에서의 금기 비속어 번역의 특징 연구: 영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3(5): 277-306.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2nd ed.), London: Routledge.
- Bassnett, Susan (2014) *Translation*, Abingdon: Routledge.
- Des Rochers, Arianne (2017) 'The Travels of a Cuban Feminist Discourse: Ena Lucía Portela's Transgressive Writing Strategies in Translation', in Luise von Flotow & Farzaneh Farahzad (eds) *Translating Women: Different Voices and New Horiz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20-137.
- DuPlessis, Rachel (1985) *Writing beyond the Ending Narrative Strategies of Twentieth-Century Women Write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Ellis, Havelock (1934/2013) *Man and Woman: A Study of Secondary and Tertiary Sexual Characters*, London: Elsevier.
- Evans, Rebecca (2015) 'James Tiptree Jr.: Rereading Essentialism and Ecofeminism in the 1970s', *WSQ: Women's Studies Quarterly* 43(3/4): 223-239.
- Feral, Anne-Lise (2011) 'Sexuality and Femininity in Translated Chick Texts', in Luise von Flotow (ed.) *Translating Women*, Ottawa: University of Ottawa, 183-201.
- Fredrickson, Barbara L. and Tomi-Ann Roberts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Furukawa, Hiroko (2017) 'De-feminizing Translation: To Make Women Visible in Japanese Translation', in Luise von Flotow & Farzaneh Farahzad (eds) *Translating Women: Different Voices and New Horiz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76-89.
- Haiping, Liu (2017) 'Manipulating Simone de Beauvoir: A Study of Chinese Translation of *The Second Sex*', in Luise von Flotow & Farzaneh Farahzad (eds) *Translating Women: Different Voices and New Horizons*,

- London & New York: Routledge, 159-171.
- Ji, Yinglin and Dan Shen (2004) 'Transitivity and Mental Transformation: Sheila Watson's *The Double Hook*', *Language and Literature* 13(4): 335-348.
- Kennedy, Chris (1982) 'Systemic Grammar and Its Use in Literary Analysis', in Ronald Carter (ed.) *Language and Literature: An Introductory Reader in Stylistics*, London: George Allen & Unwin, 82-99.
- Lee, Sang-Bin (2011) 'Fictional Characterization and Reader Response: A Comparative Transitivity Analysis of Yi Sang's *Nalgae* and Its Translations and a Reader-response Questionnaire Surve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Maier, Carol (1998) 'Issues in the Practice of Translating Women's Fiction',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75(1): 95-108.
- Martínez, M. Angeles (2002) 'From "Under the Rose" to *V.*: A Linguistic Approach to Human Agency in Pynchon's Fiction', *Poetics Today* 23(4): 633-656.
- Mulvey, Laura (1992)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Mandy Merck (ed.) *The Sexual Subject: A Screen Reader in Sexuality*, London: Routledge, 22-34.
- Nardi, Valeria (2011) 'The Translation of Gender Stereotypes in Advertising', in Eleonora Federici (ed.) *Translating Gender*, Bern: Peter Lang, 117-127.
- Phillips, Julie (2006) *James Tiptree, Jr.: The Double Life of Alice Sheldon*, New York: Picador.
- Santaemilia, José. (2011) 'Feminists Translating: On Women, Theory and Practice', in Eleonora Federici (ed.) *Translating Gender*, Bern: Peter Lang, 55-77.
- Sardin, Pascale (2011) "'Gender Trouble" in the American Translation of Tahar Ben Jelloun's *L'Enfant de Sable*', in Luise von Flotow (ed.) *Translating*

- Women*, Ottawa: University of Ottawa, 305-325.
- Simon, Sherry (1996)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miss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impson, Paul (1993) *Language, Ideology and Point of View*, London: Routledge.
- Von Flotow, Luise (1991) 'Feminist Translation: Contexts, Practices and Theories', *TTR* 4(2): 69-84.
- Von Flotow, Luise (1997)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Wallmach, Kim (2006) 'Feminist Translation Strategies: Different or Derived?', *Journal of Literary Studies* 22(1/2): 1-26.
- Wolmark, Jenny (1994) *Aliens and Others: Science Fiction, Feminism and Postmodernism*,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 Yu, Zhongli (2015) *Translating Feminism in China: Gender, Sexuality and Censorship*, London &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ranslating Characterization in Feminist SF: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Translations of *Houston, Houston, Do You Read?***

Lee, Sang-Bin & Lee, Sun-W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t has been argued that character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fictional themes. In line with this argument, the present study aims to show whether different translations of characterization could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matic realization. The texts under study are *Houston, Houston, Do You Read?* (1976), an award-winning feminist novella written by James Tiptree Jr. (Alice B. Sheldon), and two Korean translations, one by a feminist publisher (1994) and the other by a science fiction publisher (2016). The main focus of analysis is three male astronauts in the story: Bernhard, Davis, and Lorimer. Bernhard is a male chauvinist who often uses the c-word and sees women as sexual objects. Davis is a deeply religious man who believes he was chosen by God to subjugate women to their intended roles. Lorimer is an intellectual man who takes a good look at Bernhard's sexual viol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translations reveals that the second translation describes the male characters in a way that better reflects Tiptree's feminist views, a finding supported by an email interview with the translator. This study also discusses potential impacts of socio-cultural factors on translators.

▶ Keywords: science fiction, feminist translation, sexual objectification, male gaze, peritext

▶ 주제어: 공상과학소설, 페미니즘 번역, 성적 대상화, 남성응시, 주변텍스트

이상빈(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부교수

resangbin@daum.net

관심분야: 페미니즘 번역, 트랜스크리에이션, 광고번역, 통역평가

이선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

layout81@naver.com

관심분야: 페미니즘 번역, 광고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8년 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